

마태복음 27장 1-2절, 11-26절 말씀

<1>예수님 vs 빌라도

①

- 0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
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
- 0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

-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
총독이 물어 이르되
네가 유대인의 왕이냐
예수께서 대답하시되
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

②

-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
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

③

-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
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
-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
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

<2>빌라도 vs 무리

①-1

- 15 명절이 되면
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
-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
-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
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
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
-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

설득㉑

-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
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
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
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

설득㉒

-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
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

①-2

-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
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
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

②

- 22 빌라도가 이르되
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
그들이 다 이르되
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
23 빌라도가 이르되
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
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
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

③

-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
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
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
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
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
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
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

